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 관련요인

안성아¹, 이경숙^{2*}

¹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²울산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related to Job-seeking Anxiet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Seong-Ah Ahn¹, Kyoung-Sook Lee^{2*}

¹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Jinju Health College

²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Ulsan

요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이 지각하는 신체상, 자기표현 및 취업불안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취업불안에 미치는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U시 소재 1개 대학과 B시에 소재한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183명의 간호 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WIN 22.0으로 T-test, 분산분석,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신체상과 자기표현은 정적상관관계, 취업불안과 부적상관관계, 자기표현과 취업불안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상, 자기표현이었고 총 설명력은 26.2%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도록하며 자기표현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 감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xplore body image, self-expression, and job-seeking anxiety-related factor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was collected from 183 nursing college students enrolled at a university in U or B cit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October to November 2019.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22.0. Body image was found to b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xpression and job-seeking anxiety, and self-express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seeking anxiet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educational level, body image, and self-expression explained 26.2 % of job-seeking anxiety.

Keywords : Nursing College Students, Body Image, Self Expression, Job-Seeking Anxiety, Factor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대졸자의 취업난이 극히 심각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취업불안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적절한 취업불안은 취업준비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취업불안은 취업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대학생들은 취업불안으로 인해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휴학이나 졸업을 미루기도 한다[3]. 높은 취업불안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활발한 활동과 성장할 대학생에게 소화불량, 수면부족, 답답함 등의 신체적 상태와 초조함, 낮은 자신감, 집중력 등의 심리적 문제 뿐 아니라[2], 공황장애, 대인 기피, 우

*Corresponding Author : Kyoung-Sook Lee(University of Ulsan)

email: thinnovation@naver.com

Received December 21, 2021

Accepted March 4, 2022

Revised January 26, 2022

Published March 31, 2022

울증 등의 정신과적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4,5].

간호 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취업처가 부족하지 않으나, 간호대학생수의 증가로 취업경쟁이 높아져 취업희망 병원에 맞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학업이외에 스펙을 쌓기 위한 수많은 활동으로 인해 대학생활 중 취업 불안이 높아지게 된다[6-8].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취업불안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신체상이란 신체에 대한 개인의 지각, 느낌, 사고며 [11],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중요하다. 성인초기에 형성된 신체상은 생애 전반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간호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하여 학점 및 스펙관리뿐 아니라 면접에 대한 준비도 신경을 많이 쓰며, 면접에서 타인이 평가하는 자신의 신체상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12]. 취업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미용성형까지 선택하기도 한다[13]. 즉, 신체상이 긍정적이면 긍정적 정서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14], 부정적으로 형성된 신체상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주어, 취업불안 수준도 높아진다[8,15].

취업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한데, 자기표현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15]. 자기표현은 정서적으로 지지와 심리적인 안정 및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16]. 자기표현의 향상은 불안감 감소뿐 아니라 정신건강, 직업적 수행능력향상에도 도움이 된다[17]고 하였다.

취업불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스트레스 연구[6,7]가 있으나 취업불안[8]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였으며, 국외에서의 [15], 직무스트레스[18]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취업불안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6,8]. 취업불안의 영향요인으로 비합리적인 신념[9], 지각된 어머니의 과보호[10]등을 보고하였으며,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학년별 취업준비행동과 취업불안비교[8]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간호 대학생들의 취업불안도 상당히 높으며, 이 취업불안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을 때, 취업준비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으며, 전반적인 적응수준에도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취업불안이 높을 경우 병리적으로 발전하여 개인의 적응 및 취업을 위한 활동의 몰입을 저해할 수 있다[19].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취업불안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불안을 감소하기 위하여 자기표현과 신체상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교적 취업불안이 높아지는 간호 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자기표현과 신체상이 취업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여 취업불안을 낮추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신체상, 자기표현 및 취업불안의 관련성과 취업불안에 대한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자의 신체상, 자기표현 및 취업불안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신체상, 자기표현 및 취업불안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신체상, 자기표현 및 취업불안의 정도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 및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U시와 B시에 소재한 종합대학 2개 3,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으며, 총 2개 대학의 학생 183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수는 G 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중간효과 크기인 effect size .15 기준으로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5개, 검정력 .95 으로 설정하여 138명 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0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4부를 제외한 183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수는 적절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신체상

Cash(1990)[20]의 다면적 신체-자기관계질문지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hip Questionnaire)을 근간으로 이숙현[17]과 김태연[18]의 연구를 토대로 신선아[21]가 수정 보완한 신체상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이며, 외모평가 및 지향성, 체중 평가 및 지향성, 건강평가, 질병평가, 신체부분 만족도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당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선아[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외모평가 및 지향성 .88, 체중 평가 및 지향성 .80, 건강평가 .82, 질병평가 .73, 신체부분 만족도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구전체의 Cronbach's α 는 .89였으며, 외모평가 및 지향성 .86, 체중 평가 및 지향성 .80, 건강평가 .84, 질병평가 .77, 신체부분 만족도 .90 이었다.

2.3.2 자기표현

Rakos 와 Schroder(1980)[13]의 '자기표현 척도'를 우리문화에 맞게 재구성한 변창진과 김성희(1980)[1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이며, 각 문항 당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은 표현내용, 음성적 요소, 신체언어로 구성되었다. 변창진과 김성희[14]의 연구에서 전체도구 Cronbach's α 는 .86, 도구-관습적 신념요인 .81, 관계-정서적 신념 .82 였고 본 연구에서 전체도구 Cronbach's α .89, 표현내용은 .62, 음성적 요소 .87, 신체언어 .81 이었다.

2.3.3 취업불안

취업불안(Employment anxiety)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규판(2008)[2]이 개발한 '취업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취업불안상태, 취업불안 유발상황, 취업불안 유발요인의 3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이며, 각 문항 당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규판(2008)[2]의 연구에서 전체도구 Cronbach's α 는 .96이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도구 Cronbach's α .96, 취업불안상태 .94, 취업불안 유발상황 .97, 취업불안 유발요인 .86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 까지였다. 자료수집은 임의표집으로 U시와 B 소재 2개 대학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학과장이 허락한 학과에 한하여, 연구자가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취업 시기가 비교적 가까운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휴학생은 제외하였다. 자료수집은 미리 수업시간을 파악하여 3교시나 4교시 후 점심시간을 할애하여 강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를 허락한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알리고 연구에 동의하는 사전 동의서를 받아 연구에 동의한 학생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도록 하고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도중에 불편감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를 완성하여 제출한 대상자에게는 답례품으로 햄버그를 제공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설문내용에 대한 응답시간은 20~2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총 20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87부가 수거되었고, 설문지 중 무응답이 많거나 자료처리의 부적절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183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3)

Characteristics		n	Percentage
Gender	Male	69	37.7
	Female	114	62.3
Grade	3rd	86	47.0
	4th	97	53.0
Circles	Yes	70	38.3
	No	113	61.7
Economic status	Upper	26	14.2
	Middle	143	78.1
	Low	14	7.7
Academic record	≥ 4.0	30	16.4
	$3.5 \geq, < 4.0$	82	44.8
	$3.0 \geq, < 3.5$	56	30.6
	< 3.0	15	8.2
Health status	Good	90	49.2
	Moderate	81	44.3
	Bad	12	6.6
Religion	Yes	45	24.6
	No	138	75.4
All		183	100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62.3%, 학년은 3학년이 47.0%, 4학년이 53.0%, 학업성적은 4.5점 만점에 평균 3.5이상 4.0미만이 44.8%로 가장 많았고, 동아리 참여는 없는 경우가 61.7%로 많았다. 경제 상태는 78.1%가 중간정도였고, 건강상태는 49.2%가 좋다고 응답하였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75.4%, 있는 경우가 24.6%였다(Table 1).

3.2 신체상, 자기표현, 취업불안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신체상, 자기표현, 취업불안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신체상은 5점 만점에 3.07±.42점, 자기표현은 5점 만점에 3.23±.45점, 취업불안은 5점 만점에 2.83±.76점 이었다(Table 2).

Table 2. Mean Scores for body image, self expression, job-seeking anxiety (N=183)

Variables	Range	M±SD	Max	Min
Body image	1~5	3.07±.42	1.68	4.68
Self expression	1~5	3.23±.45	2.10	4.25
Job-seeking anxiety	1~5	2.83±.76	4.75	1.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불안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불안은 성별, 학년, 동아리참여 여부, 경제상태, 학업성적, 종교 유무,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job-seeking anxie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3)

Characteristics	Job-seeking anxiety		
	M±SD	t/F (p) Scheffe	
Gender	Male	2.73±.70	-1.43 (.155)
	Female	2.89±.78	
Grade	3rd	2.73±.70	-1.72 (.088)
	4th	2.92±.74	
Circles	Yes	2.90±.70	0.49 (.623)
	No	2.81±.79	
Economic status	Upper	2.80±.79	0.44 (.338)
	Middle	2.86±.77	
	Low	2.73±.56	
Academic record	≥4.0	2.79±.86	0.71 (.548)
	3.5≥, <4.0	2.79±.76	
	3.0≥, <3.5	2.94±.67	
	<3.0	2.68±.86	
Health status	Good	2.73±.78	1.49 (.227)
	Moderate	2.94±.79	
	Bad	2.94±.78	
Religion	Yes	2.94±.78	-0.98 (.330)
	No	2.73±.83	

3.4 신체상, 자기표현 및 취업불안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신체상은 자기표현과 정적 상관관계 ($r=.36, p<.001$), 취업불안과는 부적상관관계 ($r=-.38, p<.01$)를 나타내었다. 자기표현과 취업불안은 부적상관관계($r=-.43, p<.05$)가 있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of image, self expression job-seeking anxiety (N=183)

Variables	Body image	Self expression	Job-seeking anxiety
	r (p)	r (p)	r (p)
Body image	1		
Self expression	.36 (<.01)	1	
Job-seeking anxiety	-.38 (<.01)	-.43(<.05)	1

3.5 취업불안 관련요인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취업불안과 유의한 변수는 없어 신체상, 자기표현만을 투입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했으며($F=5.05, p<.001$), 모형의 설명력은 26.2% 였다. 주된 영향요인은 신체상, 자기표현이었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job-seeking anxiety (N=183)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2.368	.273		6.02	<.001	
Body image	-.583	.050	-0.159	-2.25	.025	1.071
Self expression	.132	.042	-0.263	-2.63	.009	1.010
$R^2=.327$ Ajd $R^2=.262, F=5.05,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상, 자기표현, 취업불안의 상관관계와 취업불안 관련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취업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신체상은 5점 만점에 3.07±.42점으로 보통수준, 자기표현은 3.23±.45점 보통수준, 취업불안은 2.83±.76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측정도구는 다르지만 간호 대학생을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에서 5점 만점에 외모지향 평균 3.52 ± 0.64 점, 외모평가 평균 2.78 ± 0.62 점, 건강지향 평균 3.09 ± 0.74 점, 건강평가가 평균 3.32 ± 0.74 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표현 5점 만점에 3.08점[28]보다 다소 높았고, 취업불안은 간호 대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불안이 2학년의 경우 평균 2.83점, 3학년은 3.09점[1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간호 대학생을 3.4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기간이 10월부터여서 취업처에 최종 합격된 4학년이 포함되었기에 취업불안이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취업불안은 성별, 학년, 동아리, 경제상태, 성적, 종교,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는 성별, 학년에 따라 취업불안 차이가 있다는 결과[19], 취업불안이 종교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경제상태, 학교생활, 학점, 동아리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23]의 연구에서 3학년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결과, 최명희등[6]의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가 3학년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는 상이하다. 그러나 간호 대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간 취업불안의 차이가 없었다[8]는 연구결과와는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불안이 3.4학년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4학년이 더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자료수집시기를 달리하여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불안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하여 재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이 취업불안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므로 여학생들의 취업불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를 확대하여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신체상은 자기표현과 정적 상관관계, 취업불안과는 부적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표현과 취업불안은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신체상이 긍정적일수록 자기표현을 잘하며 취업불안이 낮았고, 자기표현을 잘하면 취업불안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모만족도와 자기표현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선행연구[12], 외모만족도와 취업불안이 유의한 부적관계를 나타낸 결과[23]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취업불안을 낮추기 위하여 긍정적 신체상을 갖도록 하고 자기표현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상과 자기표현이었다. 이는 신체상의 영향은 아니지만, 외모자아존중이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역할을 한다고 한 연구결과[20], 남학생에서는 외모 관심도가

높을수록, 여학생에게서는 면접 시 외모비중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취업 불안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24]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자기표현과 취업불안이 음의관계[14]가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을 감소하기 위해 긍정적인 신체상과 자기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취업불안은 대학 생활의 부적응은 물론 정신 및 신체적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9]는 연구결과와 취업불안이 취업준비행동을 증가시키는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있으며[25, 체육계열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26]. 이는 가벼운 수준의 취업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이 취업불안이 낮은 학생들보다, 취업준비행동을 동기화하며[25], 이는 곧 취업불안이 개인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아직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밝혀진 신체상과 자기표현이 취업불안을 낮추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간호 대학생들에게 교과외 과정에서 긍정적인 신체상을 갖도록 하고 자기표현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려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은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자료수집시기와 대상자를 달리하여 재확인하여 간호 대학생에게 적합한 취업불안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신체상, 자기표현, 취업불안은 중간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의 신체상은 자기표현과 정적 상관관계, 취업불안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기표현과 취업불안은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체상, 자기표현이었고, 설명력은 26.2%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학생의 취업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긍정적인 신체상을 갖도록 하고 자기표현을 증진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은 일부 지역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간호 대학생에게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언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신체상과 자기표현과 취업불안과의 보다나은 상관성 연

구를 위해 신체상 및 자기표현이 낮은 군과 높은군간의 비교연구가 필요하겠다. 간호 대학생에게 취업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이나 자기표현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J. Y. Nam, & C. K. Kim, "Attachment on Job-Seeking Anxiety from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and Growth Mindse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 pp.613-633, 2020.
DOI: <https://doi.org/10.2251/jcci.2020.20.2.613>
- [2] G. P. Cho, "A study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job-seeking anxiety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46, No.2, pp.53-75. 2008
- [3] M. J. Cho,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anxiety and stres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pp.5, 14-17
- [4] S. H Roh, & K.S. Kim, "The Effects of Preferred Job Type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Confirmation Bias and Job Anxie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8, pp.190-199.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8.190>
- [5] Y. H. Kang & K. H. Kim. " Body weight control behavior and obesity stress of college women,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2, pp.479-487.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02.292>
- [6] M. H. Choe, J. H. Kim, E. S. Nam, Y. M. Lee, J. H. Hwang, M. K. Lee & H. Park, .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4, No2, pp. 122-131. 2015.
DOI: <http://dx.doi.org/10.5807/kjohn.2015.24.2.122>
- [7] H. Y. Joung., S. S. Sim., & S. B. Lee. (2017). "Effect of the convergent mock interview program on the program demand, career attitude maturity, job preparation stre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9, 59-65.
DOI: <http://dx.doi.org/10.15207/JKCS.2017.8.9.059>
- [8] H.J. Choi, J.S. Kim, "Comparison between Nursing Studen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Anxiety",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 Vol.8 No3, pp.21~33, 2018.
DOI : <https://doi.org/10.35273/jec.2018.8.3.002>
- [9] H.S. Kim,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redictors of Employment Anxiety of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4(2), pp.1165-1187, 2013.
DOI: <http://doi.org/10.15703/kjc.14.2.201304.1165>
- [10] G. A.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Overprotection and Job-seeking Anxiety*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pp.9~11, 2016.
- [11] Wassner, A. "The impact of mutilating surgery or trauma on body-image.",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Vol 29, No3, pp.86-90. 1982.
- [12] M. S.. Kim. "Self-esteem, appearance concern, body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cosmetic surgery of female nursing student.", *Journal of Psychol Behavior*, Vol7, No1, pp.15-29. 2015
- [13] R. F. Rokos and H. E. Schroeder, *Self-directed assertiveness training*, New York: Bio Monitoring Application, 1980.
- [14] C. J. Byeon, S.H., Kim, "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Student Guidance Research*, Vol 13, No1, pp.17-47, 1980.
- [15] Leary, M. R. . *Self-presentation: Impression Management and Interpersonal Behavior*. Madison, WI: Brown& Benchmark. pp. 36-38, 1996.
- [16] H. O., Jeon,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adult attachment and self-assertiveness, on depress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7, pp.312-323. 2014.
DOI:<http://dx.doi.org/10.5392/JKCA.2014.14.07.312>
- [17] S.Y. Kim, "A Study on Employment Uneasines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 Expression by Enneagram Typ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4. pp.691-706.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14.691>
- [18] Lazarus, R. S., & Averill, J. *Emotion and cogn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anxiety*. In C. D. Spielberger (Ed), *Anxiety: current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uk: Academic Press. pp.68-69, 1972
- [19] T.J. Kim., K.H. Min, "A study on Relation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job-seeking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The Mediation Effect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Vol 10, No1*,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pp. 31-53. 2020
DOI: <http://dx.doi.org/10.35273/jec>.
- [20] Cash, T. F., & Hicks, K. L.. *Being fat versus thinking fat: Relationships with body image, eating behaviors, and well-being.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 14, No3*, pp. 327-341.1990.
- [21] S. A. Shin, *A Relationship among Symbolic Consumption, Body Image, and Physical Leisure Activity Invol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pp. 7, 12-16, 2007.
- [22] Rakos, R. F. & Schroeder, H. E, *Self-directed Assertiveness Training*. New York: Bio Monitoring Applications. pp.48-49, 1980.

- [22] C. J. Byeon., S.H., Kim. 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Student Guidance Research*, Vol13, No1, pp.17-47. 1980.
- [23] H. S. Jung, Y. S. Kwon & Y. H. Choi, Mediating Effects of Self-appearance 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gure Cognition and Vocational Anxiety in Fe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18, No.1, pp.69-79. 2017.
- [24] M.K. Cho, E.J. Lee, Y.N. Lee, J.Y. Choi. "Correlations in Appearance,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in Undergraduat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10, No.2, pp.141-150. 2013.
- [25] M.J. Ju, J.N. Kim..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nxiety and career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umanities Research*, Vol27, pp.157-174, 2011.
- [26] M.O. Han, G.P. Cho,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dentification, and Job-Seeking Anxie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Physical Maj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Korean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pp.95-104. 2021.
- [27] Y.H., Yeom, K.E., Lee., "Factors Affecting Body image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8, No4, pp.452-462. 2011.
- [28] W. J., Kim, J.H/, Park, "The Effects of an Action Learning-based Nursing Ethics Education on Self-assertiveness and Ethical Values", *Journal of Muscle Joint Health*, Vol. 24 No. 3, pp.179-186. 2017. DOI: <http://doi.org/10.5953/JMJH.2017.24.3.179>

이 경 숙(Kyoung-Sook Lee)

[정회원]



- 1992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3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7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울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정신건강, 스트레스, 청소년 정신건강

안 성 아(Seong-Ah Ahn)

[정회원]



- 1988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8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스트레스, 중년여성, 청소년